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⑧

2014년 11월 12일(수), 오후 2~4시

# 洛下生 李學達의 詩文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 성 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⑧

## 洛下生 李學達의 詩文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 I. 낙하생 이학규와 김해

이학규(1770~1835): 본관은 주창. 자는 醒叟, 호는 洛下·文猗堂·春星堂·因樹屋·匏花屋 등이다. 한양의 皇華坊(지금의 정동)에 있었던 외가에서 아버지는 應薰과 어머니 驪州李氏로 진사 用休의 딸 사이에 유복자로 태어났다. 李家煥이 그의 외숙이며, 정약용의 妹夫人 李承薰이 그의 三從叔이다.

1801년의 신유옥사에서 이승훈·이치훈 형제가 처형되고 외숙인 이가환 역시 혹독한 고문으로 죽었으며 이학규는 전라도 능주(=화순)으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백서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김해로 定配되었다. 1824년 아들의 청으로 풀려났으나 영남을 두루 다니다가 충주 근처에서 불우한 생애를 마쳤다. 김해에 머무는 동안 <江倉農歌>와 <南湖漁歌> <上東樵歌> <菴亭紀事詩> <金官竹枝詞> <金官紀俗詩> 등 김해의 풍속을 소재로 한 연작한시를 지었으며, 특히 그가 지은 <草梁倭館詞>는 부산의 초량왜관과 관련된 유일무이한 연작한시이다. 저서로는 필사본 『낙하생고』 등 20여 책이 있으며, 여기에 실려 있는 1,480여 편의 시문은 19세기 초의 김해와 김해 인근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 II. 西林寺(=銀河寺)와 靈龜庵, 그리고 對馬島

<酬人信宿西林寺寄示 衲子名> <西林寺乞佛糧疏> <重修西林寺禪房記> <西林寺讀書社記> <西林寺> <金希瑞, 安景稷. 約同遊西林寺. 因雨不果.> <夜宿西林寺坦公房> <夜宿西林寺頓公房> <重九日. 同鄭宅升使君. 從西林寺. 步至靈龜庵.> ·가야불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AD.48)에 가락국의 수로왕이 처음으로 서림사 삼불전과 칠승료 및 영구암을 세웠는데, 옛 土城의 동쪽 신어산의 산기슭 북동쪽 방향에 있다.”

(後漢光武建武十八季。駕洛首露王。肇建西林寺。三佛殿七僧寮暨靈龜庵。在古土城東神魚之麓。良維之原。)

<金官紀俗詩> N.76

納陵의 寒食에 탕자꽃 피어있는 듯한 하늘인데,	納陵寒食枳花天
西林寺 쪽으로 가서 杜鵑花나 완상해 볼까나.	去向西林賞杜鵑
가장 좋기로는 靈龜菴 꼭대기에서 둘러보는 것,	最好靈龜頭上望
저녁녘 날 개이자 뿌옇게 보이는 건 바로 對馬島땅.	晚晴煙樹馬州연(田奕)

靈龜菴은 김해 동쪽의 神魚山에 있는 암자이다. 이학규는 原註에서 여기에 올라가면 對馬島가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府의 동쪽에 靈龜菴이 있는데 이 암자는 신어산의 꼭대기에 있는 石閣에 있습니다. 그 楓林의 빼어남으로는 영남 우도에서 제일인데 맑은 날 낮에는 對馬州가 보입니다.”(「答丁參議若鏞書」, “府東有靈龜菴 菴在魚山絕頂石閣 楓林之勝甲於嶺右 淸晝 見對馬州”)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밖에 盆山의 打鼓峰과 북쪽의 後浦에서도 對馬島가 보였던 것 같고, 때때로 對馬島를 오가는 배들도 보였던 모양이다. “對馬州는 지척인데 뿌연 파도속에 고요히 있네.”(「打鼓山城縱目」, “馬州咫尺煙濤靜”) “봄에는 佛巖의 나무, 맑을 땐 對馬州의 배들이 보이네.”(「酒後感懷疾書不已 計一百五篇 詞或太露 字或失粘 并澄汰之」, “春知佛巖樹 晴見馬州船”) “神魚山은 비취빛 바다와 연이어 있고, 對馬島는 구름 같은 파도 너머로 아득히 있네.”(「登盆山打鼓峰」, “魚山連翠色 馬州茫雲濤”) 등의 구절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이학규의 눈에 비친 김해의 倭風

#### <金官竹枝詞>

- |                              |         |
|------------------------------|---------|
| N.6. 번쩍번쩍 빛나는 접부채는 端陽의 뗏살이요, | 研光摺扇端陽骨 |
| 번쩍거리는 둥근 베는 일본의 무늬로다.        | 閃色圓幬日本紋 |
| N.7. 倭館의 牙牌로 된 세 짝의 주사위에,    | 倭館牙牌三隻股 |
| 한번에 백만금을 던지고도 넉넉하다 하질 않네.    | 一投萬金未云優 |

N.6은 일본의 문양으로 만든 접부채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N.7은 세 짝의 주사위로 도박을 하는 이른바 忽空伊라는 일본풍의 도박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사한 내용이 「金官紀俗詩」에도 실려 있다. 「금관기속시」는 「금관죽지사」와는 달리 각 詩마다 상세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어 당시 김해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 <金官紀俗詩>

- |                             |         |
|-----------------------------|---------|
| N.28 좋은 술이 강물처럼 넘치고 국은 勝歌妓, | 美酒如河 勝歌 |
| 한번에 천 꺾미를 逋欠하고도 많다고 않네.     | 一逋千鎰未云多 |
| 셈해내는 거야 아전이 참으로 능한 일인걸,     | 筭來刀筆真能事 |
| 새로 어여쁜 젊은 색시도 맞아들였네.        | 新娶熊神二八娥 |
| N.31 만냥을 한번에 던지는 사내,        | 萬錢一擲最男兒 |
| 手鬪를 익힐 때야 일마다 신기하겠지.        | 手鬪諳時事事奇 |
| 대가집에 집의 벽이 서있다고 말하지 마라,     | 不道大家家壁立 |
| 요사이엔 忽空伊에도 이골이 났으니.         | 邇來兼曉忽空伊 |

N.28의 시는 勝歌妓를 즐기는 아전의 사치스런 모습과 엄청난 돈을 몰래 빼내고서도 많다고 하지 않는 몰염치를 소재로 한 것이다. 이학규는 自註를 통해 “勝歌妓는 맛있는 국의 이름이다. 만드는 법은 본래 대마주에서 나온 것인데, 고을의 부호들이 많이 이를 즐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일본음식은 逋欠으로 축재한 아전은 물론이고 고을의 부호들이 많이 즐겼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시는 도박이 성행하는 김해의 습속을 소재로 한 것이다. 이학규는 이 시 외에도 도박을 즐기는 김해의 그릇된 습속에 대해 염려하는 시문을 많이 남기고 있다. 「戒馬弔說」이라는 장문의 論辨은 물론이고 편지글과 여러 종류의 시에서 도박의 폐해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시의 自註에서도 도박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

府中에서 馬弔戲가 성행하는데 80개의 패를 쓰며 이를 手鬪라고 한다. 또 세 짝의 주사위를 만들어 쓰는데 이를 忽空伊라 하며, 이는 東倭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여러 고을에서 한 번에 열냥, 백냥을 던지고, 가산을 기울여 파산하기도 하니 府의 서리들이 조세포탈(逋)을 많이 하는 것도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府中盛行馬弔戲 用八十葉曰 手鬪 又造三隻骰子 名忽空伊 自東倭流傳 列邑一擲十百 傾家破產 府胥之多逋 盖多由此”)

이학규는 「與」라는 편지글에서 “설령 잔뜩 돈을 따게 되더라도 이는 반드시 敗家하게 하는 것이요 子弟가 이를 가져오게 되면 이는 다른 부모와 처자로 하여금 피를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잃게 되면 이는 자기 부모와 처자로 하여금 피를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縱使饒得錢物 是必從敗家子弟手中來 是他父母妻兒 嘔盡心血者 苟或自己失卻 則是亦自己父母妻兒 嘔盡心血者”)라고 쓰고 있다. 여기에 忽空伊라는 일본식 도박까지 유행하게 되었으니 그 폐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김해지역의 생활문화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은 勝歌妓와 忽空伊, 洋傘과 일본식의 摺扇 뿐만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이미 對馬島에서 들어온 밀감과 일본식의 국수 역시 김해 인근에서 기호식품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前浦行」 가운데 “蜜柑 두 그릇이 살결을 반질거리고 서리처럼 희게 하는도다.”라는 구절과 “對馬島의 가락면과 薩州의 신선로”라는 구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학규는 이 시의 自註를 통해 “밀감은 대마주에서 나는데, 梅李처럼 작으나 맛이 매우 달고 시원하다”고 하면서, “이 구절들은 蘆花屋에서 밤에 술 마실 때의 일을 서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옥의 실체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집에서는 對馬島의 가락면을 薩州에서 들어온 신선로에 끓여 먹고, 또 對馬島산 밀감을 그릇에 담아 내놓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낙하생전집』에는 이들 음식 이외에 우리 생활에 파고든 일본제품들이 여기저기에 시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日本刀, 美濃紙, 瓷器, 風磬, 모기장, 접시, 술병 등이 그것이다. 이학규는 “호쾌한 일이란 제주도산 말을 타고, 흥가분한 복장에 일본도 차는 것이네” (“快事耽羅馬 輕裝日本刀”) 라 노래하고 있다. 일본의 무력을 상징하는 일본도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선호되고 있었던 것이다. 美濃紙는 이학규가 原註에서 밝히고 있는 바처럼, 美濃州에서 나는 종이로 일본의 최상품이었다. 그런데 金彝源같은 사람은 “美濃紙에 붓을 휘두른다.” (“歲暮有裏金彝源”, “振筆美濃牋”, 倭牋出美濃者品最佳:原註)고 하였다. 그리고 宋景三의 시에 차운한 시에도 “일본종이 백 더미를 새로 재단하네.” (“次韻宋景三假梅贈李玄對 兼示金樞知學基”, “倭牋百疊翦裁新”)라는 구절이 있어 일본종이의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洛下生全集』에는 당시 김해의 시장 풍물을 읊은 「觀市八十韻」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가운데 “푸른 꽃무늬의 벼루는 일본의 瓷器” (“靑華日本瓷”)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에는 “面鏡은 반짝이는 琉璃” (“面鏡晃琉璃”)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또한 당시에 일본에서 유입되던 유리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感事三十四章」에는 “玻璃로 만든 風磬”(“玻璃風外磬”)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 구절의 바로 아래에 “처마의 風磬에는 모두 오색의 玻璃을 쓰는데 일본에서 난다”(“檐馬皆用五色玻璃 出日本”)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일부 계층에서는 처마의 풍경까지도 오색의 玻璃로 만든 화려한 일본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는 또 “일본 모기장을 치니 서늘하기 그지없네.”라는 구절도 있고 그 아래에 “더운 달에는 일본제 모기장을 친다.”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倭幪涼不歇”, 暑月 施日本蚊幪·原註) 또 다른 詩文에는 “왼쪽에 冷煖玉子を 놓아 두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나는 것이다.”(「七療」, “左施卽有冷煖玉子 出于東倭”)라든지 “일본의 붉은 접시에 작은 술병” 「正月二日 由郭門到古西門 往還間 觸日記所見 作俳體 寄玄對」 N.6, “倭紅盤子小偏提”)라는 구절도 보인다. 방에는 일본산 모기장을 치고 처마에는 일본산 風磬을 달아 놓으며, 엄청나게 돈이 드는 일본음식인 勝歌妓를 즐겨 먹고 일본식 도박인 忽空伊로 재산을 날리는 것과 같은 일이 19세기 초반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鄭暹이라는 서울사람이 後浦에 있는 섬에 세들어 살면서 해산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는 방안에 對馬島에서 나온 황금색 臙脂菊의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 한다. (「後浦行」 N.16의 原註, “京城人鄭暹 僑居島中 鬻海爲生 堂中盆養金絲臙脂菊 出對馬州”) 이러한 예가 그리 흔하지는 않았겠지만, 서울에서 장사하러 와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자신의 방안에 일본산 菊花盆을 몇 삼아 기르는 그런 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V. 이학규에 눈에 비친 19세기초 김해의 풍속

무릇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영남의 속담에 ‘살아가기 좋은 곳은 왼쪽으로는 蔚山이요 오른쪽으로는 金海’ 라고 하는 것이다. (「贈金致默序」, “凡所謂生人之需 靡不備給 嶺言曰 生人之樂 左蔚右金”)

문화면에서는 낙후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서울의 일부를 떼어다 놓은 듯하다는 것이 이학규의 눈에 비친 김해의 모습이였다. 그리하여 「燈夕口號」에서 “등 한 개에 모름지기 만 냥을 써야 볼 수 있다네” “성안에 燈 단 집이 5백 가구” “西臺는 흡사 서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 “物色으로는 서울에 비길 만하니” 등의 말로 김해의 변화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燈夕口號」 ‘一燈須費萬錢看’ ‘城裏張燈五百家’ ‘西臺恰有京華意’ ‘擬將物色似京華’)

이 고을엔 巨室大家가 없고 문장을 한다고 읍에서 뽑내는 사람은 府의 아전들 가운데 조금 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디 帝와 帟를 구분하지 못하고 豕와 亥를 멋대로 쓰니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答」, “況此鄉無巨室大家 其主持文雅 雄視一邑 惟是府胥之稍黠者 而彼固帝帟不分 豕亥惟意 人無能從”)

고을 서당의 글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상에 들어도 문장을 짓지 못하고 下에 드는 자는 詩句 하나 짓지 못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骨董羹엔 모름지기 萬錢을 쓰는데, 과일 채소 魚肉 등을 섞어 끓인다네.” (「邨夕有懷」, “骨董羹須費萬錢 菓蔬魚肉合同煎”)라고 한 이학규의 지적은 굶주린 이웃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에 탐닉하는 富農이나 大商의 그릇된 생활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김해의 일부 계층에서는 그런 국 한번 만들어 먹으면서 만 냥을 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먹는 것이 그러했으니 그 외의 생활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부자들 머리 빗으면서도 상투는 틀지 않고,	大家梳頭不作髻
비단 아랫도리는 매끄럽기가 서리와 같네.	兜羅裙子澆如霜
요즈음에 기름진 얼굴이 더욱 더 번지레 하니,	近知脂面許光悅
올해에 동래에서 새로 온천욕을 한 모양이로세.	此歲東萊新浴湯

상투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비단옷을 입고 동래에 가서 온천욕까지 즐길 정도로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습속의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전들의 횡포와 탈법에 의한 축재도 심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하고서는 그 돈으로 걸쭉한 놀이판을 벌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 듣자하니 김해부의 아전들은	聞有府中胥
호탕하고 사치로움이 한 고을에 소문났다네.	豪侈一邑傳
한 끼니에 오백냥을 쓰는가 하면	一餐動五百
한판 내기에 예사로 만냥을 건다네.	一博常十千
◇ 높다란 구유에 잘 달리는 말,	高槽撻子馬
별채에는 멋진 아가씨.	別舍熊神娘
문에 들면 아기자기한 방,	入門小房櫳
식탁을 물리는데 구리그릇이 반짝인다.	退食銅盞光
한번 고기 먹을 때 수십 냥이 들고	一饗數十錢
한잔 술 마실 때 다섯 꿩미라네.	一杯五縉強
◇ 고을의 문서에는 일만 호인데,	州圖一萬戶

너희는 삼만 께미를 포탈하고선,	爾連三萬緇
뜰 가운데서 살찐 소 때려잡고,	中庭椎肥牛
도박판 벌리며 풍악을 울려대다니.	呼盧間吹笙

아전들의 貪虐과 방탕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들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아전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전들의 횡포는 社會批判詩에서 으레 거론되는 것이지만, 이학규의 시는 아전의 수탈 그 자체보다는 그들의 방탕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부호나 아전들에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주막의 여인, 읍내의 건달, 염전의 주인 등도 덩달아 사치스런 소비생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 물들여 만든 담뱃대는 鬱金빛으로 반짝이고, 검은색 赤銅의 작은 씌미에 태극무늬 담배함. 부끄럽구나, 주막의 젊은 아낙네들. 으레 한 발 되는 긴 담뱃대 물고 있구나.	染成煙竹鬱金光 小 <sub>1</sub> 烏銅太極匣 媿爾當墟三五女 也須啣著丈來長
나) 아전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면서 논밭문서 다루면서 잇속을 챙긴다네. 주막의 계집들과 한량없이 놀아나며 떡 만들고 술 걸러주며 삼동을 지낸다네.	不從刀筆不從農 田簿叢中利竇攻 何限風流墟上女 打 <sub>1</sub> 壓酒過三冬
다) 섬사람들 싸우고 송사벌이며 소리를 질러대고 소금가마 갈대밭 잡혀 증서를 만든다네. 빛 문서 쌓여 감당 못하면서도, 무조건 값비싼 음식 먹고 보자 하네.	島人鬪訟動 <sub>1</sub> 訇 鹽 <sub>1</sub> 蘆田左券成 到得壓頭堆債帳 政須恣喫萬錢羹

가)는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주막의 여인을 소재로 한 것이다. 그런 여인들은 그 뿐 아니라 검은색을 띤 赤銅으로 만든 작은 삼지와 태극무늬를 수놓은 담배통을 옆에 놓고 있었던 것이다. 原註에는 “府內에서 鬱金을 물들인 花斑竹이 나는데 嶺外에 이름이 높다” (“府內染鬱金花斑竹 名於嶺外” 고 밝혀져 있다. 나)는 관아 주변에서 서민들을 등쳐먹으면서 노는 건달들을 소재로 한 시이다. 原註에는 “고을 안의 건달들이 백성들의 논과 밭 문서를 전담하여 관리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빼내어서 주색의 비용으로 삼는다. 수령이 엄한 법으로 이를 다스리고자 하나 끝내 이를 금하지 못한다.” (府中遊手 專習民田簿帳 偷弄民賦 爲酒色之費 守宰嚴法繩之 終莫能禁也)고 되어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주막의 계집들과 놀아나면서 방앗간이나 술도가 주변을 맴돌며 겨울을 보내었던 모양이다.

도무지 생산적이지 못하면서도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부류 중에는 다)에서와 같은 소금 굶는 사람들도 있었다. 쉽게 돈을 벌게 되니 돈 귀한 줄 모르고 마구 쓰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마구 돈을 빌려다가 마음껏 취하고 포식하는 무절제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原註에 의하면, 고을 사람 가운데 빚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우스개소리로 “소금쟁이들이 취하고 배불리 먹는 것을 배워야만 해” (邑人有負債多者 舉相謔曰 政須學鹽漢醉飽也)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용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낙하생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